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

예레미야 33:1-9

김요셉 목사님

서론

오늘은 성경 말씀을 확인하면 된다. 편안하게 들으면서, 말씀이 이렇게 나왔으니 붙잡아야 되겠다 하겠지만 해도 응답받게 될 것이다. 나는 항상 기조만 이야기한다. 기조 메시지 속에서 응답을 받으시기 바란다.

(1) 예배 전에 일찍 와서 기도하라.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다 쏟아내는데 너무 쏟아내느라고 듣지를 못한다고 한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주목하며 반드시 기도하라. 오늘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두고 물으면서 기도하라.

(2) 이렇게 기도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 예배에 집중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나에게 각인되는 것이다. 예배 시간에는 완전히 초 집중을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을 수 있다.

(3)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 예배 후에는 반드시, 나의 말씀을 완전히 각인하고 확증한 다음에 나가라. 그게 안 된다면 조금 더 앉아서 기도하고 묵상하라. 조금 늦게 가도 밥 없어지지 않는다. 예배 끝났는데 말씀을 잘 모르겠다 하면 다시 붙잡고 보면서 기도하라.

이게 안 되면 예배도 하나의 종교생활이 되어 버린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올 때는 전부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아야 한다. 그래야 예배 때 집중할 수 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 안 되면 나가기 전에 포럼도 좀 해 보라. 이 문을 나갈 때에는 확실히 말씀을 붙잡고 가야 한다. 나갈 때에는 말씀이 콧하고 붙잡아져서 나가야 한다. 안 그러면 하나의 예배 생활에 불과하게 되지만, 이게 되면 완전히 영적 축복을 받고 나가게 된다. 1분이든, 5분이든 좋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묻고, 기도하며 집중하고, 확증하고 나가라. 그래야 누구를 만나도 말씀을 이야기해 줄 수 있다. 말씀이 완전히 나에게 잡혀있을 수 있게 된다.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그렇게 하라.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는다. 자, 우리는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 말씀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답과 약속이 성경에 다 나와 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보도록 하자.

1. 구원의 약속

첫째로 구원의 약속이다. 너무나 중요하다.

(1) 요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무리 구원을 이루셨어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누구를 구원하시는가? 믿는 자다.

(2) 요1:12,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3) 요5:24,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 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엡2:1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을 약속하셨다.

(4) 막16:15-16,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불신자의 여섯 가지 상태에 계속 빠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다.

(5) 롬10:13,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 속에 이런 구원의 약속이 다 들어있다.

2. 영적인 약속

모든 것이 다 영적인 약속이지만, 특별한 영적인 약속이 있다.

(1) 요일3:8,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2) 엡1:4-5,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했다.

(3) 빌4: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것이 엄청난 비밀이다. 우리 램넛들이 이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것을 한 번만 체험하면 복음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왜 시험에 드는가? 왜 힘들어서 갈등하다가 떠나가는가? 이것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능력을 확실히 믿어라. 램넛들도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4) 시41:10,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불신자가 모르는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신자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신자만이 가질 수 있는 축복이다. 불신자는 모르는데, 완전 축복이다. 약속을 주셨다. 붙잡기만 하면 된다. 알고만 있어도 된다.

3. 인도의 축복

(1) 고전10:13,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지 않는다고 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했다. 큰 시험이 오면 큰 응답이, 작은 시험이 오면 작은 응답이, 어마어마한 시험이 오면 어마어마한 응답이 오게 될 것이다. 나는 램넛트를 만나면서 계속 결단하는 것이 있다. 예전에 정목사님이 ‘너는 너같은 제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 큰일 아닌가? 그래서 진짜 결단했다. ‘정말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불신앙적인 것을 자꾸 버린다. 나 같은 제자 만나면 큰일 아닌가? 램넛트들이 나 같은 모습이 되면 큰일 아닌가? 그래서 기도했다. 여러분도 현장 가면 꼭 여러분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 알콜 중독자는 꼭 알콜 중독자를, 도박 중독자는 도박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시험이 올 때는 그만큼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다. 부가 왜 안 오나? 건강이 왜 안 오나?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다 주시게 되어 있다.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한다. 착각하지 마라. 사람이 아무리 필요해도 하나님이 안 필요로 하시면 안 준다. 판 테 쓸까봐. 그래서 시험이 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한다.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것이다.

(2) 잠3:5-6,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신뢰하지 마라.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여호와를, 매순간 매일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기를 축원한다.

(3) 시32:8,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묵하여 훈계할 것’이라고 했다.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신다.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4)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다. 시48:14,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나는 이 말씀이 너무 행복하다. 나 같은 사람을 죽을 때까지 든든하게. 램넛트에게 늘 나는 이야기한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고 반드시 인도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축복이다.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램넛트의 미래, 우리의 미래, 사60장에 다 나와 있다. 우리는 이미 빛을 받았다. 이미 입했다. 일어나서 비추면 된다. 흑암이 단번에 무너지고, 열방이 물러오고, 이방의 경제가 온다고 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왜 안 주나? 필요 없으니까.

4. 물질에 대한 약속

(1) 빌4:19,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중직자들은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응답받아야 한다. 그래야 램넛트들도 응답받는다. 이것은 약속이다. 중직자들은 약속을 단단히 붙잡아라.

(2) 시84:11, “여호와 하나님은 해와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좋은 것, 선한 것으로 채우신다.

(3) 요삼1:2,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

간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물질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이것은 기준이다. 물질의 축복을 받는 기준이다. “네 영혼이 잘 됨 같이.” 영적인 축복이 최우선이다. 여러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영적인 축복이다.

5.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성경에 너무 많다. 오늘도 이야기했다.

(1) 렘33:1-9, 계속 나온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말씀하신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까지 보일 것이다.”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어 있다. 약속으로 하나님이 주셨다.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신다. 그 약속이다.

(2) 요일5:14,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가 들으심이라.” 하나님과 뜻이, 방향이 맞는 사람이 응답받게 되어 있다.

(3) 요일3:22-24,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이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떤 때에 기도하시는가. 어떤 때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어떤 사람이 ‘우리가 하루에 세 시간은 기도해야 한다’고 하니, 류목사님이 대답했다. “24시간 기도해야 한다.” 어쩔 때에만 기도하는 것이 종교생활이다. 24시 기도하라. 모든 것, 보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켜라.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4) 요15:7,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녀의 축복이다. 우리의 위치, 우리의 신분이다.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당당히 구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다.

(5) 요14:14, 16:24, 똑같이 말씀한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누구의 이름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야 한다.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 응답도 받는다. 귀신도 응답하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응답받는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이다. 이것이 진짜고,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약속이 많다. 7천 가지의 약속이 다 성취되었다. 지구상 모든 일에 대한 약속이 다 성경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의 약속을 확실히 붙잡아라. 100% 믿어라. 이 약속은 100% 믿는 사람은 응답받게 되어 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데 의사를 못 믿으면 안 낫는다. 감기를 한 달 동안 달고 살았는데, 약을 먹다가 좀 괜찮아지니까 끊었더니 더 안 좋아지는 것이다. 지금까지 약을 먹고 있다. 100% 믿어야 한다. 확실히 붙잡고 완전히 승리하시기 바란다.

결론

나는 결론에서 할 말이 많다. 오늘부터 결단하라. 그래야만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램네토가 산다.

(1) 삶의 기준이 예배로 되어야 한다. 여러분의 중심,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 혼자 예배해도 그렇다. 그런데 특히 중요한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공예배를 주셨지 않나.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축복의 흐름이 흘러가는 것이다. 여러분, 예배 중심의 삶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잡아야 한다.

(2)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달할 수 있다.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살릴 수 있다. 그래야 이 사람이 말씀으로 혼자 살아남을 수 있다. 안 그러면 이 사람 말 들었다가 저 사람 말 듣고 계속 떠돌게 된다.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그래서 나는 어린이부 부모님을 모시고 부탁드렸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라. 램네토들의 스케줄을 전부 예배로 맞춰라. 학원 안 보내도 된다. 학원 보냈더니 지식은 높아도 영적 힘이 없으니까 환난 당하면 다 무너진다. 모든 스케줄을 조정해라. 부탁했는데, 할지 안할지 모르겠다. 다음에 만나면 또 이야기할 것이다. 나는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이다. 골2:2-3의 말씀을 나는 100% 믿는다. 그래서 부모님께 완전히 마음을 담아서 부탁했다. 예배 오실

때 램네토와 같이 와라.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예배 올 때 램네토와 같이 와라. 모든 삶의 스케줄을 예배로 맞춰라.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은 완전히 결단하라. 램네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한다. 모든 학원 스케줄을 예배로 바꿔라. 학원 안 가도 된다. 말씀으로 완전히 뿌리내려서 램네토가 자기가 가고 싶다 할 때 보내면 알아서 하게 된다. 어떤 램네토는 예수 믿더니 공부가 되어진다고 했다. 맞지 않나. 그렇게 램네토를 키워야 한다. 안 그러면 서울대 가서 자살하는 사람과 똑같이 된다. 자기 힘으로 공부한 거니까. 우리는 누가 주시는 힘으로 공부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업을, 가정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결단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다.

(3) 그래야 우리 현장과 후대에게 답을 줄 수 있다. 이게 그냥 늘 들었던 말씀, 원단메시지, 이렇게만 이해하면 안 된다. 영적인 전쟁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이 램네토가 혼자 스스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도 혼자 현장에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얻어라. 그게 예배다. 우리 램네토들이 혼자 해외에 가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후대에게 완전히 잘 전달해 주어야 한다. 나는 일본에서 느꼈다. 우리 램네토들이 너무 잘 크고 있다. 이번에 램네토 10명, 선생님 8명이 같이 일본에 갔다. 아무런 터치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포임을 잘 하는지 모른다. 복음 몰라서 원자폭탄 맞고 죽은 사람이 너무 불쌍하다고 했다. 불상 보고 절하는 사람이 너무 불쌍하다고 했다. 여기 가서 동전 넣고 기도하고, 저기 가서 넣고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불쌍하다고 했다. 정말 잘 봤다. 선생님들이 가르쳐주지도 않았다. 램네토들이 영적인 포임을 하는 것이다. 기종교회 성도와 램네토가 같이 갔는데 완전히 달랐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언약을 전달해야 하겠는데, 스스로 혼자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되겠다.

(4) 마지막이다. 전부 이 말씀을 가지고 완전히 현장을 정복하도록 다락방을 체험해야 되겠다. 부모님에게도 부탁했다. 계속 이야기할 것이다. 초등부 졸업하기 전에 다락방 운동을 맛보고 졸업하라. 램네토가 램네토를 양육할 수 있는 축복을 확인하고 확증하고 졸업하라. 자기가 가서 복음을 주고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 양육해서 또 다른 사람이 복음을 받게 하기까지 맛보고 졸업하라. 부모님에게도 이야기했다. 부모님들이 이것을 체험해라. 그렇게 해야 램네토들이 살아난다. 왜 그런가? 이제 우리 현장을 아무도 못 들어간다. 램네토들이 못 들어간다. 복음을 가지고 스스로 살아남아서, 스스로 말씀운동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우리 중직자들이 그래서 이 말씀운동을 먼저 체험해서 전달해 줘라.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 말고, 어떻게 생명 살릴 수 있는지, 어떻게 이 말씀운동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전달해 줘야 한다. 그게 key다. 그래야 램네토가 산다. 왜 복음만 강조하는가? 나머지지는 알아서 잘 찾아가서 잘 먹고 잘 산다. 그래서 복음만 말해 주어야 한다. 복음을 듣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또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해야 한다. 모든 참사랑 가족들이 이것을 체험해야 한다. 박동영 장로님께 나는 늘 감사한다. 오라고 하면 늘 오신다. 바쁜데도 오셔서 현장에 가서 캠프 참여하고 복음 전하신다. 여러분, 우리교회가 3천 제자의 응답을 누리려면, 계속 영접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그것 아니면 살릴 수 없다. 램네토, 현장을 살릴 수 없다. 오늘부터 이 성경의 말씀이 약속이다. 이 약속을 100% 완전히 신뢰하고, 완전히 예배에 성공하라. 전 성도가 나와서 예배에 성공하라. 우선순위를 완전히 예배에 뒤라. 이제부터 안 나오는 사람은 다 해외 가겠다고 생각하겠다. 모든 초점이 예배다. 그래서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램네토 스스로 살아남도록. 곳곳에서 말씀운동이 일어나도록. 이것을 맞춰야 한다. 그래야 3천 제자의 응답이 올 것이다. 그래야 100명의 선교사가 파송될 것이다. 그래야 우리 램네토들이 계속 살아난다. 이 약속을 반드시 믿고 미션으로 붙잡고 오늘부터 시작하라. 특히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부탁한다. 부모님들에게 부탁한다. 그래서 램네토들과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금요일예배, 토요일예배에 같이 참여해라. 이 축복을 꼭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시기를 축원한다.